

페어플레이(Fair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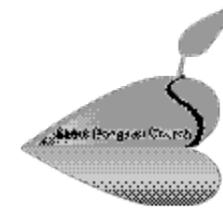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네팔(정정영, GMD) 요르단(양일주, 김현숙) 중국(이정삼, 유인영, 유혜경, 김성남, 김선화) 카자흐스탄(최진규) 터키(강그레이스) 파키스탄(Zaman Anjum) 푸에르토리코(김혜진, 한희숙) 기독교보 월간고신 기독교북한선교회 섬의료복지재단(북한선교재단) 중동선교회 한민족복지재단(북한행공정)

구역이 지원하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중국(김정국 - 청1 / 이산지 - 청2, 청5) 터키(진요한 - 청4, 청6, 노원1, 노원3) 필리핀(정순성/손은경 - 창국, 중랑1, 성북) 광동교회(한익서 - 노원2, 장유) 군산 성북중앙교회(최상권 - 북부, 성북2) 사랑의 교회(김희준 - 청9) 회정교회(오수목 - 소망, 남부) 양평식장교회(도봉1) 황성장로교회(조원래 - 중랑1, 중랑2) 교회개혁 실천연대(도봉2, 청7) 수도권미례교회포럼(영산)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 (룻2:13-23)

김대진 목사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게 하겠느냐(공동번역)” “그는 틀림없이 복 받을 사람이다(표준새번역)” 이 표현들은 20절 “여호와와 그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 하노라”는 구절을 다양하게 번역한 내용 들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이 렇게 축복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에게도 “너로 에브라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헬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4:11)”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

사람만 줄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받아보지 못한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은 흥내조차 낼 수 없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은혜는 ‘샬’ 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샬은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입니다.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샬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도와줘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

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2:10)”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은혜 베푸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이삭을 흘리고, 은혜의 이삭을 줌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도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2:12)” 보아스가 은혜 베풀은 것은 인간적인 휴머니즘 차원보다도 룻을 바라

L · o · v · e · l · y · · · C · h · u · r · c · h · · · w · i · t · h · · · J · e · s · u · s

었을 때도 보아스는 그 이름이 기념될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 양편에 큰 놋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아스의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보아스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복받은 비결이 20절에 나타 납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복 받은 이유는 그가 은혜 베푸는 자였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 은혜를 받아 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필립 안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엇이 은혜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과하여 살아가도록 훈련 받습니다. 은혜는 받아본

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는 언제 베풀어야 할까요? 은혜는 먼저 내가 속한 일상 가운데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발에서 일하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발에 찾아온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은혜 베풀어야 할 자들이 가까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 베풀어야 할 자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또 그를 위하여 좁에서 조금씩 뿜아 버려서 그로 좁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16절)” 보아스는 룻이 모르도록 이삭을 조금씩 흘 리도록 했고,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은혜 베풀었다고 홍보하 지도 않았습니다. 도움 받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이 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식탁공동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향해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을 보아스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살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은혜 베푸는 자는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1:8)”고 고백한 바울 사도 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며 신적책임을 감당하는 은혜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설교 하이라이트) 예수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사 · 랑 · 과 · 은 · 헤 · 가 · 넘 · 치 · 는 · 예 · 배

주일 1·2부 예배 1부: 9시 30분/2부: 11시 30분

인도: 김대진 목사

*입례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로의 부름

기도인도 1부 문용현 집사
2부 최병호 장로

찬 송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서교독 제37문 이사야 40장(2)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헌찬송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봉헌예물

봉헌기도

*말씀봉독 룻기 3:7-18 (구 405면)

찬 양 1부 호산나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광고&성도의 교제

말씀선포 "하나님을 향한 프러포즈"

헌신의 기도

*폐회송영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축 도

* 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섭니다.

교독문 제37문 이사야 40장(2)

인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회중: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아꼈어 내시고

인도: 각각 그 이름을 부르사나니

회중: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인도: 아람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회중: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인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회중: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인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회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정경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회중: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같이)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일3부 찬양예배 오후 2시 30분

인 도 김준석 강도사

기 도 성양식 집사

성 경 마 28:19 (신 52면)

설 교 Rev. Jaman Injam 목사 (파키스탄)

"Great commission with compassion" (궁홀로 이루는 위대한 사명)

통 역 김대진 목사

축 도 김대진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나실인 삼손"

성 경 삿 13:1-8 (구 385면)

설 교 박 신 강도사

기 도 신한심 집사

찬 송 79장, 340장, 252장

목요열린예배 오후 1시 30분

인 도 김대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설 교 이우리 전도사

기도인도 김대진 목사

찬양인도 김준석 강도사

새벽기도회 매일새벽5시

인 도 김대진 목사

동 산 소 식 - 2007년 교회표어: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 (고후 5:9)

1.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 123특새 - 11월 특새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주제로 이번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오늘 3부 예배 - 파키스탄 Jaman Injam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 동산FC 결승전 안내 - 제1회 비전컵 어린이축구대회에서 동산FC가 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예선성적: 동산 마당참조) 결승전에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00 창원초등학교)

5. 하반기 구역장 수련회 - 11.6(화) 광림수도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6. 하반기 학습·세례식 - 11월 18일 2부 예배시
- 교육: 주일 오전 10시 8층 새가족부실 (문의: 김성에 전도사)
7. 피택자훈련: 주일 3부 예배 후
- 수요제자반: 수요예배 후 목양실
8. 임직식 - 연기합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이기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봉사위원

- 안내위원 1부 정효기 집사 양인심 집사
- 2부 최병두 집사 육수남 집사 정동4/정동5구역
- 헌금위원 1부 정효기 집사 양인심 집사
- 2부 최병두 집사 육수남 집사

다음주 예배기도당번 (11.4)

- 1부: 백성철 집사
- 2부: 정재만 장로
- 3부: 엄학근 집사
- 수요: 이나영 집사

예배모임안내

| | | | | | |
|-----------|-------|----|--------|-------|----|
| • 주일 1부 | 09:30 | 7층 | • 영아부 | 11:30 | 6층 |
| • 주일 2부 | 11:30 | 7층 | • 유치부 | 09:30 | 6층 |
| • 주일 3부 | 14:30 | 7층 | • 유초등부 | 09:00 | 6층 |
| • 목요예배 | 13:30 | 7층 | • 중고등부 | 11:00 | 6층 |
| • 노방전도(목) | 14:30 | 6층 | • 청년부 | 13:30 | 6층 |

[11월 목회계획]

- 4일 123특새 연합찬양예배 정기제직회 교회설립주일
- 11일 마리아헌신예배
- 18일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학습세례식 성찬식
- 25일 요한헌신예배 정기총회 성탄준비위원회모임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사랑의 동산

영적싸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지 수 십년이 되었으면서도 그 삶이 변화 되지 않은 채 기쁨을 잃어버린 삶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점점 지옥처럼 느껴지고 교회생활은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사회생활에서도 의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겠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에 대적해서 승리해야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싸움이지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회피하다가 처절한 패배를 맞으면서 먼저 가정에서의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부부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도록 부추깁니다. 직장상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범죄자들을 통해 삶에 공포와 아픔을 주는 일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인간의 평안과 기쁨을 공격해서 삶의 허무와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조장하지요. 그런가하면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봉쇄해 버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전지 상태 속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평화시대를 사는 듯한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사탄의 공격에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 하는 삶을 살기를 얼마나 권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사탄의 유혹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말씀으로 사탄에 대적하는 우리의 영적싸움을 통해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copyright@가정을 낳는 가정 "강안삼의 가정편지" -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산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루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고신교단에 속해있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서울동산교회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자도 죄인도 병자도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는 나지 막한 동산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의 능력이 운행하는 교회를 꿈꿨다.

▶ 균형 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좌우 한 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오름 같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꿨다.

▶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며 노인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의 사역에 집중 함으로 중형교회로서 특화된 사역을 감당하는 치유 공동체, 사역공동체를 꿈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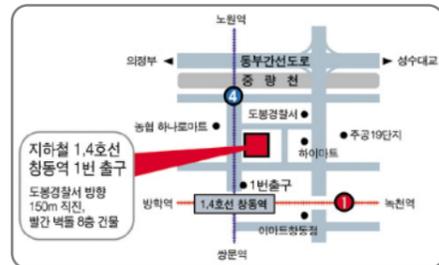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대진
시무장로: 최병호 정재만 오정관 백동선
피택장로: 김성용 문용현
은퇴장로: 강장환
부교역자: 박 신 강도사(교육/행정/학사관/1교구)
김준석 강도사(음악전담/인턴넷/2교구)
김성에 전도사(심방/새신자부/기초양육)
이우리 전도사(중고등부/청년부)

■ 서울동산교회 안내

주소: 우)132-899,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4-4
전화: 02)900-2232
홈페이지: www.dongsan21.org

〈찾아 오시는 길〉



...도봉구지역 교의 연합과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제1회 비전컵 VISION CUP 어린이 축구대회

예선(리그전): 2007년 10월 7,14,21일(주말) 오후 4시-6시 본선(결승, 3-4위전): 10월 28일(주말) 오후 4시-6시
주최: 4개 교회(반석감리교회, 백운재교회, 서울동산교회, 창동제일교회) 교회학교 연합

균형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